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6일, 민형배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 9. 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1소위(2024. 9. 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4. 9. 1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5차 전체회의(2024. 9. 1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민형배의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도 많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가 대표적입니다. 누가 봐도 특혜 수사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인사개입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수사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합니다. 위법 행위에 눈 감고 권력을 호위하는 데만 열중합니다. 검찰의 비중립성과 불공정성에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 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승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유상범 위원)

- 특검법은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문구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여야가 협상해왔음. 대상이 지나치게 넓으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사법권이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발동해서 수사한다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임.
- 내용상 수사대상도 불명확하고, 야당에서 고른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김승원 위원)

- 수사대상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정을 했음.
- 명백한 법 위반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통과되어 특검이 시행되어야 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